



# 온양온천비사

溫陽文化院





# 목 차

緒 論 .....	5
I. 牙山市의 地誌 및 歷史的 考察 .....	7
1. 王室의 溫陽溫泉 이용 .....	7
2. 行政區域의 變경과정 .....	9
1) 溫陽郡의 沿革 .....	10
2) 牙山縣 沿革 .....	10
3) 新昌縣 沿革 .....	11
II. 開化期 日帝의 韓國 侵略史 序說 .....	13
1. 侵略의 動機 .....	13
2. 日帝의 溫陽溫泉 強占過程 .....	14
3. 日韓同志組合의 組織 .....	19
4. 雲峴宮(興宣大院君官邸) 基他라는 詐稱의 理由 .....	26
5. 日帝의 侵奪行爲의 例 .....	27
1) 韓國의 農商工品の 수탈 .....	27
2) 韓國의 鐵道權 掌握과 溫泉開發 .....	28
3) 韓國 固有의 風致를 무시한 日帝의 新井館 開發 .....	29
III. 韓日合邦을 前後하여 溫陽溫泉을 이용한 소위 名士들 .....	33
1. 日人들의 溫陽溫泉 이용 .....	33
2. 李完用의 溫泉휴양 .....	34





## 緒 論

역사라는 것은 우리 인류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천체(天體)가 움직이는 것도 지구가 변화하는 것도, 초목이나 금수가 성장하고 생식(生殖) 진화하는 것도, 역사임에는 틀림없으나 천체나 지구의 움직임은 영원한 침묵이고, 초목과 금수의 성장과 진화는 말이 없고 글이 없어서 오직 만물의 영장인 인류에게만 역사는 살아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흩어진 자기의 파편을 주어 모아 원형을 만들고 그 연대를 알아내듯이 감춰졌던 향토사를 찾아내어 짜집기하면 정사(正史)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훌륭한 사료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향토사의 생생한 모습이나 전통을 자주적(自主的)인 체제로 재구성해서 관찰해 가는 일은 한국사학의 일이나 마찬가지로 필자는 생각한다.

따라서 역사라는 것은 일종의 사색(思索)·비판의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칫 잘못하면 그 관찰이 피상적이거나 그릇된 주관(主觀)에 빠지기 쉽고, 한편 기술적(記述的)인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적 근거없이 기술하다가 오류를 범하여 본의 아니게 누(累)를 끼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러기에 본고는 철저한 논거(예) 주문에 원문)를 제시하여 사실(史實)을 입증했다.

온양온천이 조선조 역대 왕실의 행궁이었던 성지로 시작된 이후 수백년을 내려오면서 그 변화무쌍한 구조와 반세기를 두고 본 사람들의 강탈과정은 주권국가로서의 무능을 보는 것 같고, 현재의 종합적인 온양관광 Hotel의 모습으로 변하도록 발전한 것은 사실상 온양온천이 전국 어느 온천장보다 질적, 지리적으로 뛰어났고, 현재의 시설이 온천수와 냉천수의 탕(湯) 시설을 겸한 각종 종합화된 관광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좀더 세계적 국제적인 관광명소로 되려면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고, 그 면



적의 넓이에 다소 문제점이 있지않나 생각해 본다.

어쨌든 이 「溫陽溫泉秘史」는 그 제목의 의미와 같이 이 지역 특성을 최대한으로 부각시킨 점이라고 하겠다. 부족하고 미비한 것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정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박한 향토사(郷土史)의 일 부분이 되어 주었으면 영광이겠다.



## I. 牙山市의 地誌 및 歷史的 考察

온양온천은 그 지명에 보이듯이 오랜 옛적부터 많은 양의 온천수와 냉천수가 솟아올라 우리나라 유일의 온천장이다.

특히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왕실에서의 이용이 잦아 전국 유일의 행궁(行宮)이었다.

행궁이란 왕이 거동할 때 머무는 별궁(別宮)으로 다른 말로는 이궁(離宮)이라고도 한다. 조선조 때 우리나라에는 행궁이 여러군데 있었다. 그 주요한 곳을 열거하면 첫째가 온양행궁이고 다음이 의주행궁(義州)·광주행궁(廣州)·강화행궁(江華)·부안행궁(扶安)·양주행궁(楊州)·수원행궁(水原)·전주행궁(全州) 등이 있었다.

### 1. 王室의 溫陽溫泉 이용

세종대왕은 눈에 안질이 심하여 세종 15년(1433) 1월에 온양에 행행(幸行)하셨다는 기록이 있고, 그 후 세종 22년(1440) 3월과 세종 24년(1442) 3월에도 행차하시어 3차례나 온양에 오셨다고 하는데, 그 때 온수현이던 것을 온양군으로 승격시켰다는 기록이 있다.

세조대왕은 전신에 피부병이 생겨 세조 10년(1464) 2월에 속리산 복천암(福泉庵)에 들러 혜각존자(慧覺尊者(큰스님))를 만나 복천의 찬물에 목욕했고, 그 다음해 (세조 11년) 3월 초 1일에는 온양온천에 주필(거동) 하셨는데, 당시 온천에 맑고 찬 냉천이 솟아올라 목욕하고 피부병에 효험을 보고 그 샘을 신정(神井)이라 명명(命名)하시고 수행원을 시켜 「주필신정기」(駐蹕神井記)라는 제목의 비석을 세워 기념하도록 하였는데, 지금의 바로 온양관광 Hotel 구내에 보존된 「신정비」가 그것이다.

그 후 세조 14년(1468)에는 왕이 왕비(貞熹王后 尹氏)와 동행하여 온천에 다녀갔고, 그 후에도 역대 왕후들이 온천물이 피부에 좋은 것을 알고 여러



차례 다녀간 기록이 있다.

이어 18대 현종대왕(顯宗) 및 명성왕후 김씨(明聖王后 金氏)의 은행이다. 역대 왕중에서 가장 온양온천을 좋아한 왕은 현종이다.

현종 6년(1665)에 은행하여 문과, 무과의 과거를 시행했고, 효자 충신 열여도 선발하여 표창했다. 이어 그 다음해(1666)에도 은행한 일이 있으며, 동 8년(1667)에는 인선왕후 장씨(仁宣王后 裝氏<孝宗王妃>)를 모시고 은행하였고, 다신 동 9년(1668)과 동 10년(1669) 3월은 인선왕후와 명성왕후를 함께 모시고 은행한 일이 있으니, 모두 5차례나 온천을 다녀갈 정도로 온양온천의 물을 좋아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 다음 숙종대왕(肅宗)도 숙종 44년(1718) 은행하여 문무 양과의 과거를 치루어 인재를 선발한 일이 있다.

다음 21대 영조대왕(英祖) 은행인데, 대왕께서는 26년(1750) 은행하여 과거를 실시하였는데, 문과에서 7인을 무과에서 200인의 급제자를 선발하였고, 어제시(御製詩)를 남기셨다.

특히 동년(1750) 9월 22일에는 이곳 출신 맹정승의 선친 사당에 수행원을 시켜 제관(祭官) 즉 별행 제술관(製述官)에 지제교(知製敎) 이유수(李惟秀), 대축(大祝)에 신창현감 윤언국(尹彦國), 찬알(贊謁)에 이산현감(尼山縣監) 심운희(沈運熙), 축전(祝典)에 평택현감 황진(黃眞), 축사(祝史)에 서천군수 신담(申瑛)을 파견하여 제사를 올렸다. 당시의 영조대왕의 친필로 쓴 어제사액(御製賜額) 즉 「忠孝世業 清白家聲」 과 대문(大門)에 「橫秋門」. 이곳 단(壇)을 「杏壇」 이라고 쓴 사액이 지금도 맹씨가문에 소중한 보물로 「맹정승기념관」에 보존하고 있다.

22대 정조대왕(正祖)은 대왕 19년(1795) 9월에 생부(生父)인 장헌세자(壯憲世子)가 궁술을 익혔던 사대(射臺)에 비각을 세워 어필(御筆)로 「靈魂臺」라 써서 영원히 기념하도록 하였는데, 현재 온양관광 Hotel 구내에 보존하고 있다.

이상 조선조 6대왕이 은행하여 온천수와 냉천수를 즐겼는데, 특히 왕비들의 은행은 목욕후 피부가 부드럽고 매끈매끈하여 피부 미용에 특효가 있어



전국에서 제일 손꼽는 행궁이 되었다.

그리고 온행하신 역대 왕들은 과거를 시행하여 문무를 설과(設科)하여 취재(取才) 하였는데, 특기할만한 것은 문과는 10내지 7~8명, 무과는 100내지 200명을 선발하였다. 특기할만한 인물로는 문과에 우리 역사상 최대의 간신으로 알려진 유자광(柳子光)이 세조 14년(1468)에 온양에서 시행한 별시 문과(別試文科)에서 장원급제하여 「영 경연사」(領 經筵事)까지 되었다가 탄핵으로 귀양가 죽은사람, 그리고 또 이지방 사람 맹세형(孟世衡)이 온양에서 문과에 급제한 후 다시 1623년(광해군 15년·인조1년)에 어전에서 시행한 정시문과(庭試文科) 을과(乙科)에서 장원급제하여 학유(學諭)의 벼슬을 시작으로 안동부사·봉상시 정(奉常寺 正)이 되어 통정대부의 위계까지 올랐다.

## 2. 行政區域의 변경과정

아산군<sup>1)</sup>은 1913년 12월 29일 일제하 조선총독부령 제111호로 온양군·아산현·신창현의 3개지역을 합병하고 1914년 3월 1일 「아산군」이라 이름하여 그 군청을 온양면 온천리에 두었는데, 군 설치의 기준은 그 면적이 약 40평방리, 인구 약 1만명을 한도로 하여 인접면을 병합하되 면은 대개 면적 약 4평방리, 인구 약 800명을 기준으로 삼아 이에 달하지 못하면 타군으로 병합시켰다.

예를 들면 충남은 公州, 燕岐, 大田, 論山, 夫餘, 舒川, 保寧, 靑陽, 洪城, 禮山, 瑞山, 唐津, 牙山(溫陽郡·牙山縣·新昌縣을 廢合), 天安 등 14郡으로 정리가 된 것이다.

1) 「牙山郡誌」, 1929年(소화4년) 발행, p. 1.



## 1) 溫陽郡의 沿革

백제시대에는 湯井郡이었다. 그리고 신라 문무왕(661~680) 시대에는 주(州)로 되어 총관(摠管)을 두었다. 그 후 주를 폐하고 군이 되었다.

고려 초에는 온수군으로 개칭하고 이어 현종(顯宗) 9년(1018)에는 천안부로 속해 있었는데 감무(監務)를 두었다.

이어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태종 14년(1414)에 신창을 합병하고 그 이름을 온창(溫昌)이라 했으나, 동 16년(1416)에는 온창을 분리하여 온수현(溫水縣)으로 개칭하였는데, 세종 14년(1432)에 온양군으로 개정된 이후 1914년까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런데 「조선환여승람<sup>2)</sup>」 6쪽을 보면 「建置沿革」 중에 “원래는 백제시대 아술현(牙述縣)이었는데, 신라시대 음봉현(陰峯縣(일명 陰峯縣))으로 되었다가 탕정군(湯井郡)의 영현(領縣)이 되었고, 고려 초 인주(仁州)로 되었다가 성종(成宗) 14년(995)에 자사(刺史)를 두었고, 목종(穆宗) 8년(1005)에 폐지되어 현종(顯宗) 9년(1018)에 천안부에 속했다가 그 후 아주(牙州)로 개칭하고 감무(監務)를 두었다. 그리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태종 13년(1413)에 아산현으로 개칭하고, 세종 5년(1423) 성현(省縣)을 오양·평택·신창 3읍을 분속시켰다가 또 세종 11년(1429)에 복구시켰다.

연산군 11년(1505)에는 그 일부를 경기도로 이속(移屬)시켰다가 중종 초에 온양군으로 다시 복구시켰다”고 되어 있으니 「환여승람」의 기록이 자세하기는 하나 지명면경과 행정구역 변경에 다소 혼동을 초래하고 있다.

## 2) 牙山縣 沿革

백제시대에는 아술현(牙述縣)이라 했는데, 신라시대에는 음봉(일명 陰峯)이라 개칭하면서 그 후에는 탕정군(湯井郡)에 속했는데, 고려 초에는 인주(仁州)라고 개칭했다. 그리고 조선조에 들어와서는 온양군의 연혁과 대개 같

2) 「朝鮮環輿勝覽」 1929년 (일제시대 소화4년) 발행, p.18.



기에 지면관계로 중복을 피한다.

### 3) 新昌縣 沿革

백제시대에는 굴직현(屈直縣)이었으나 신라시대에는 기량(祈梁)으로 개칭하여 탕정군(湯井郡)의 현(縣)이 되고, 고려초 처음으로 신창현이라 개방했다. 따라서 고려 현종 9년에는 천안부에 속했으나 고려 공양왕 3년(1391) 성을 현의 서쪽에 있는 창포(搶浦)에 쌓고 당성(滄城)이라 칭했다.

조선조에 들어와 태종 14년 온수현을 합쳐 온창현(溫昌縣)이라 했다가 태종 16년 다시 이곳을 현으로 나누어 현감을 두어 신창현이 된 이래 계속 이어오다가 군 폐합당시 아산군이 되었다.

#### (1) 各 地方(溫陽郡·牙山縣·新昌縣)의 行政組織의 現況

##### 가. 溫陽郡<sup>3)</sup>(輿地圖書 上)

邑內面·南郡內面·東上面·東下面·一北面·二北面·西面·南上面·南下面 이상 9개면 143리 2838호

(9개면중 온천리는 西面に 속해 있고 45호에 남 82명, 여 155명이었다.)

온양군 읍내리에는 공해(公廨) 즉 관청이 있었는데 그 규모는 東幹 12間, 衙舍 22間, 冊室 6間, 客舍 37間(지금 온양초등학교 자리에 있었음), 軍器廳 5間, 鄉廳 12間, 將廳 9間, 郡司廳 6間, 作廳 16間, 官廳 12間, 司倉 6間, 使令廳 8間, 官奴廳 3間이 있었는데 지금은 溫州衙門과 군수가 살던 관사만이 남아 있다.(溫陽郡誌, 公廨條 英祖朝때의 자료)

##### 나. 牙山縣<sup>4)</sup>(輿地圖書 上)

邑內面·西北面·縣內面·西一西面·

西南二面·南三西面·東南南面·東

3) 「溫陽郡邑誌」, 「牙山縣誌」, 「新昌縣誌」 英祖때의 寫本

1983年 10월에 발간된 「牙山縣誌 上書」 p.428 「郡縣別」 面·里的 設置狀況과 상당한 차이가 發見됨. 1894年 甲午更張 이전의 자료라고 했는데, 그 자료는 英祖때의 것밖에 찾을수가 없는데?

4) 「牙山郡誌」 1929 (일제하 소화 4년), p.2.



一東面·東北二東面·東北一北面·西北二北面

이상 10개면 3965호에 남 6,808명, 여 10,630명

다. 新昌縣(輿地圖書 上)

縣內面·東大東面·東小東面·北北面·西大西面·西小西面·南南面

이상 7개면 1,800호, 남2,656명, 여 4,990명

이상은 영조때(1724~1776)의 「여지도서 상권」에 나타난 자료이다. 그리고 1910년 한일합방당시의 아산의 군현의 통계는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1914년(일제하 대정3년)의 3개 군현이 합병되어 아산군으로 될 당시의 각 읍면의 통계는 아래와 같다.

■ 1914년(오양군·아산현·신창협 합병당시) 아산군 호수와 인구

면 명	한 국 인		일 본 인		외 국 인		계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호수	인구
온양	1,765	8,531	131	547	16	46	1,913	9,124
송악	865	6,826	2	6			867	6,832
배방	1,338	7,188	6	27			1,344	7,215
탕정	1,125	6,346	3	12			1,128	6,358
염티	1,106	5,506	6	20			1,112	5,526
음봉	1,037	6,420	2	4			1,039	6,424
둔포	1,213	6,081	8	18	15	31	1,236	6,130
영인	1,232	6,537	14	56			1,246	6,593
인주	1,006	5,950	4	15	2	2	1,012	5,967
선장	1,055	5,723	9	28	6	20	1,070	5,771
도고	1,105	6,196	14	47	4	12	1,123	6,255
신창	1,207	7,102	15	44	3	6	1,355	7,152
합계	14,054	78,406	214	824	46	117	14,314	79,347



1914년(일제하 대정 3년) 3개군현이 병합된 이후의 온양온천이 읍으로 승격된 것은 조선총독부령 제253호(1944년 5월 10일 공포)로 1944년 (일제하 소화 19년) 10월 1일 온양면의 온양온천이 온양읍으로 승격되었다.

## II. 開化期日帝의 韓國 侵略史 序說

### 1. 侵略의 動機

일본의 한국침략은 유사 이래 계속 있었던 일로 그 전부를 생략하거니와 특히 개화기 이후의 침략행위는 계획적 조직적이었다. 즉 19세기 후반의 한국은 지리적으로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되었다. 특히 대원군의 쇄국 정책은 진보된 세계정세에 무너져 미·영·독·노·불·일등의 열강에게 문호가 개방되었고, 특히 일본은 강화도조약 체결을 계기로 끈질긴 침투공작을 벌인데다가 한국의 개화과의 출현은 일본세력의 교두보역할을 하게 되었고, 대내적으로는 1882년의 「임오군란」, 1884년의 「갑신정변」등의 계속된 반란으로 정부와 사회는 극도의 어지러움으로 변해 이 틈을 탄 외세의 침투 역시 날로 더해만 갔다. 그리하여 이에 대한 반발로 동학혁명이 일어났으나, 무능하고 무력하기만 한 조선왕조는 청국의 구원을 요청했고, 뒷따라 불청객 일본이 출병함으로써 청일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더욱 여세를 몰아 한국에 세력을 구축했고, 따라서 청국에 이어 한국에 침투했던 러시아마저 일본에 패전함으로써 조선병탐의 야욕을 더욱 구체화해 나갔다.

일본은 우선 1904년 2월 23일 「한일의 정서」를 성립시켜 내정간섭을 하기 시작했고, 이어 8월 23일에는 「제1차 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를 시작하였고, 이어 1905년에는 「을사조약」을 체결하여 한국에 「통감부」를 설치 외교권과 재정권을 감아쥐었다. 이에 고종이 그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하여 1907년의 만국평화회의에 파견한 소위 「해아 밀사사건」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일본에 구실만 주어 그 해(1907) 「정미 칠조약」이 강제 체결됨으로써 차관정치(次官政治)가 행해졌다 이듬해(1909) 기유각서(己酉覺書)는 사법권을 빼앗겼고, 같은 해 8월에는 군대마저 해산당했고, 고종황제마저 일본과 친일파의 강요에 못이겨 순종에게 양위하고 말았으니, 한일합방의 기초 작업은 이미 이 해에 다 끝난셈이다. 더욱 을사조약의 원흉이며 통감부 초대 통감인 「이또오 히로부미(伊藤博文)」(일본 추밀원의장)을 안중근 의사에게 만주 하얼빈에서 총살당하자 한일합방은 급진전 돼 결국 1910년 8월 29일 치욕의 한일합방이 된 것이다.

## 2. 日帝의 溫陽溫泉 强占過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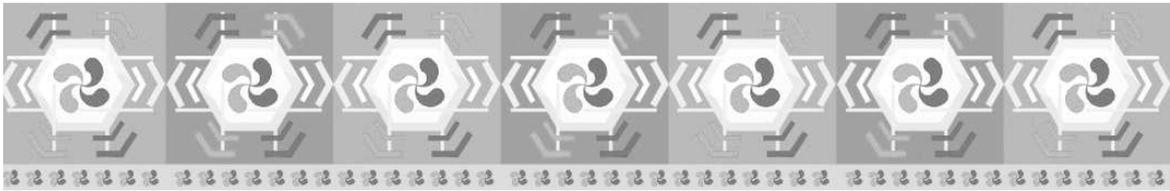
1904년 9월 이전부터 온양온천에 와 있던 일본인들은 계획적으로 온양행 궁기지가 운현궁 소속(홍선대원군 소유) 기지라고 빙자하여 제멋대로 표목을 세우고 인근에 있는 민간주택 철거를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사실이 온양군수 권중억(權重億)에게 전해지자 군수는 온궁(溫宮) 관리기관인 궁내부 대신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고, 또 궁내부 대신은 외부대신 서리 윤치호(尹致昊)에게 공문으로 일인들의 온양행궁 기지에 대한 행패를 금지해 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주한 일본공사 하야시(林權助)에게 내었다.

그 전문<sup>5)</sup>(全文 :原文)은 아래와 같다.

### 【照會 第一五三號】

大韓外部大臣 署理 外部協辯 尹致昊, 爲照會社, 茲接我宮內府文開, 現 據 溫陽郡守報稱, 陰曆 7月 初四日, 日本人 十三名 來到 本郡溫泉洞里, 環立標木 八介於 溫宮與洞里, 標木前面書瑣雲峴宮 基地五字, 并在行宮內 墻恒大門, 以 十字橫木仍爲總鐵, 聞甚悚惶, 卽行查深, 該日本人等立標 旋發, 未知姓名等情, 查此行宮卽屢 百年守護之地, 莫重莫嚴, 與他迥別, 今此外國人之立標, 誠甚駭然, 況雲峴宮基地之說 亦甚無據, 言念事體, 極爲驚歎, 請行文日本公

5) 舊韓國 外交文書(7)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p.278 #8253.



使，極行 禁斷等因，惋此，查貴國人等冒 稱雲峴宮基地，壇在莫重 行宮立標縛鐵，殊屬駭惋，業經行 飭駭郡，將駭標鐵一律撤去，爲此，備文照會 貴公使，請煩查照，亟飭該地附近港領事從嚴查戢，不復有壇行無理之舉，至以爲，須至照會者

右

大日本特命 全權公事 林 權助 閣下

光武 8年 9月 1日

위 공문의 원문을 우리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조회 제 153호】**

대한 외부대신서리 외부협판 윤치호 조회합니다. 우리 궁내부대신의 공문을 받아보니 그 내용에 “현 온양군수 「권중억」의 보고내용에 의하면 음력 7월 초 4일 일본인 13명이 온양군 온천리에 와서 표목(標木) 8개를 온궁(溫宮) 주위에 둘러세우고(環立) 또 근방 동리에도 표목(標木)을 세웠는데, 그 전면에 글을 쓰기를 「이 곳은 오래전부터 운현궁기지(雲現宮基地)」라는 다섯자를 썼고, 아울러 행궁(行宮) 내 담장가 때문에 ×자로 못을 박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으니 심히 송구스런일이기에 즉시 그 행위를 일본인들에게 물어보니 표목을 세운자의 성명이 누구인지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궁은 수백년 수호지지(守護之地)이어서 막중하고 막엄(莫嚴)한 곳이며 감히 외국인이 표목을 세운다는 것은 해괴한 일이며, 또한 「운현궁기지」라는 설(說)은 더욱 근거없는 말입니다. 이러하여 매우 경탄(驚歎)할 이이오니 권컨대 일본공사에게 공문을 보내어 엄히 금단(禁斷)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조사하여 귀국인들이 함부로 운현궁기지라고 칭하고 막중한 행궁에 표목을 세우고 못을 박는 해괴한 일이 없도록 온양군수에게 공문을 내어 그 곳에 입표한 것과 못 박은 것을 모두 철거하도록 조치하시기 정식 공문으로 조회하오니 받아보시고 그 곳 부근에 있는 영사(領事)에게 하달하여 다시는 이러한 무리한 일이 없게 꼭 실행이 되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광무 8년(1904) 9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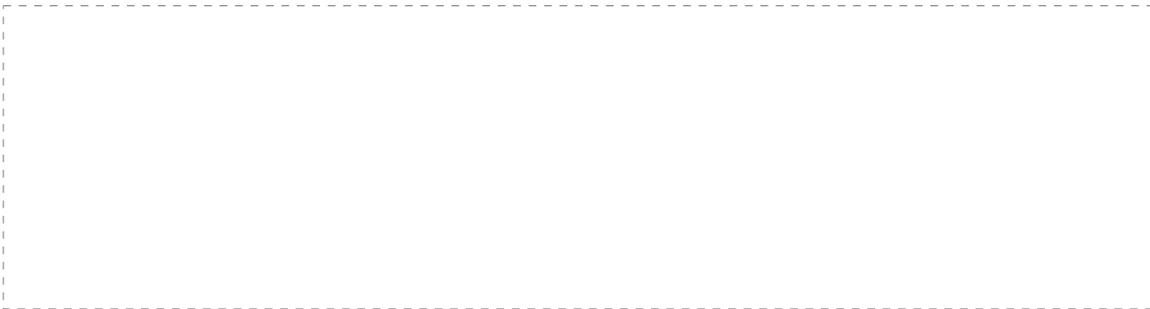
대일본특명전권공사 임 권조(하야시 곤스께) 귀하



위와 같은 항의공문에 대해 일본 공사 「하야시」는 아래와 같은 회답<sup>6)</sup>을 보내왔다.

【公文第百九十號】

溫陽行宮設標條件의 雲峴宮問議要望件



明治三十七年 九月 三日

特命全權公事 林 權 助

外部大臣署理 尹 致 昊 貴下

위 공문의 원문을 우리글로 옮겨 보면 아래와 같다.

【공문 제190호】

온양행궁 설표에 대한 운형궁문의 요망건 서신으로써 회답드립니다. 금월 1일부 귀조회 제153호로 본방인 13명이 온양온천 동리에 표목을 둘러세운 건에 대한 귀 대신의 조회는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위 사실에 대하여는 귀하의 공문대로 「운현궁기지」라고 쓴 표목일 뿐 제국신민(帝國臣民)의 토지 소유권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차라리 귀하가 그 행궁에 대해 조사해야 할 성질에 속하는 문제이지 당방에 조회할 이유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회답드리는 바입니다. 경구(敬具)

명치 37년(1904) 9월 3일

특명전권공사 林 權 助

外部大臣署理 尹 致 昊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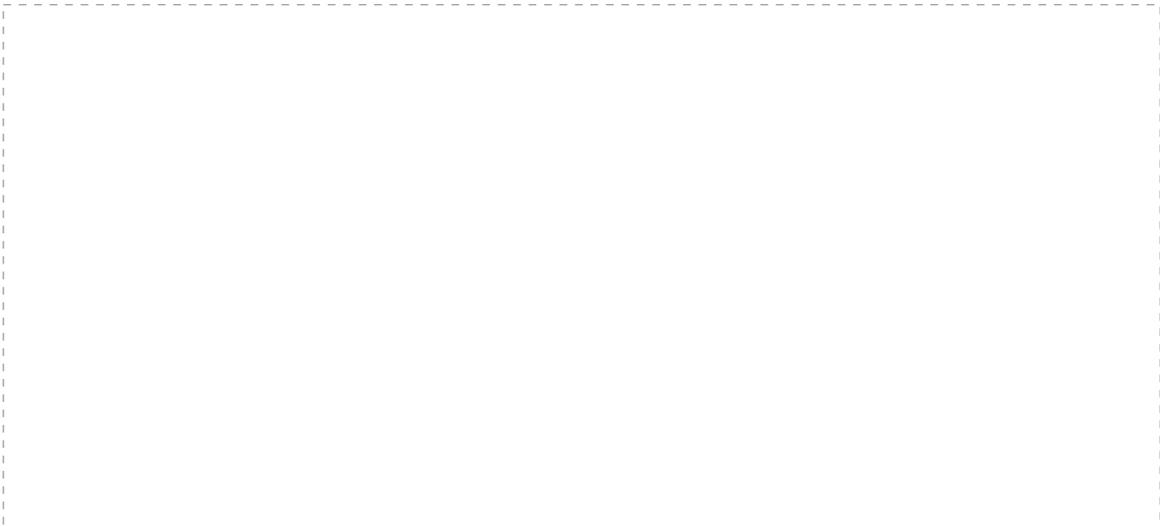
6) 「舊韓國外交文書」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p.279 #8295



그러나 8개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자 당시(광무 九年 四月 二十六日)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은 다시 아래와 같은 공문<sup>7)</sup>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당시는 바로 「일한동지조합」이 조직되어 23개 사업종목의 수탈계약이 체결되는 시기였다.

**【照會 第六十三號】**

溫陽行宮基地 日人立標 및 民家毀撤 飭禁要求



위 공문의 원문을 번역하면 아래와 같다.

**【조회 제63호】**

온양 행궁기지의 일인입표 및 민가훼철(毀撤) 칙금(飭禁) 요구건

대한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은 조회합니다. 조회사는 귀국인 13명이 온양온천에 있는 행궁에 무단으로 표목을 세우고 또 민가를 헐어 철거하는 등 일사(一事) 사건은 일찍이 작년 공문으로 주고 받은 일이 있거니와, 일인등이 운현궁기지가 전부터 있었다는 이유를 사칭(詐稱) 하였으며 또는 그 후로는 궁내부문서에 소유권이 있다는 전후 모순이 되니 간사함이 비할데 없는 일이며 이미 적법(適法)하지 못하고 또한 사리에 어긋나는 일이라는 것을 귀 대리공사도 명백히 판단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리고 본 대신도 그 논리에 양해할 수 없으며 귀 대리공사

7) 「舊韓國外交文書」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에게 명실무이(明悉無貳)한 사실이라는 것을 제의하는 바이고 또한 일 개인소유라 할지라도 함부로 침범하는 것은 법으로 불허하도록 되어 있는데, 향차 이곳은 행궁(行宮)으로 숭엄지지(崇嚴之地)를 침범한다는 것은 전후를 막론하고 드문일이어서 본 대신은 이와 같은 일을 민망하고 한탄할 일이니 바라건데 귀 대리공사는 본 대신의 뜻을 너그러히 받아들여 원리에 따라 타정(妥正)하도록 온양온천에 가까이 있는 귀국 관현에게 통첩하여 그들(일인 13명)로 하여금 경솔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엄행징변(嚴行懲辦)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 비문조회(備文照會) 하오니 귀대리 공사는 번거롭더라도 이 청을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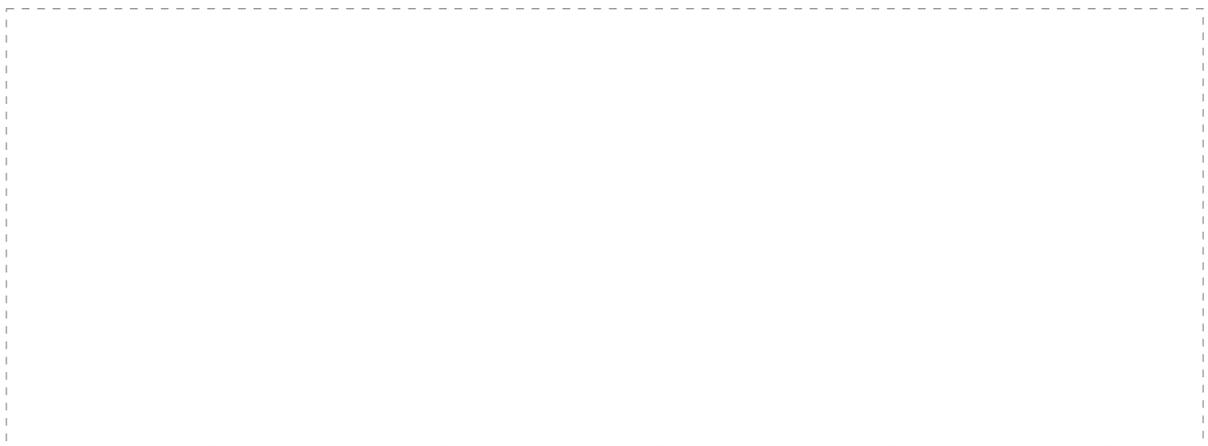
광무 9년(1905) 4월 26일

일본임시대리공사 하기하라(萩原守一) 각하

위와 같이 외부대신 이하영(李夏榮)의 재차 항의공문에 대해 주한 일본임시대리공사 하기하라(萩原守一)는 명치 38년(1905) 4월 27일자로 아래와 같이 입표행위가 정당하다는 회답<sup>8)</sup>을 보내왔다.

【公文第五十五號】

溫陽行宮日人立標行爲의 正當通告(原38冊)



8) 「舊韓國外交文書」 高大民族文化研究所編.



위 공문의 원문을 우리 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공문 제55호】**

온양행궁 일본인 입표의 정당성 통고의 건

선신으로 회답합니다. 어제(25일부) 귀 조회 36호로써 온양에서의 본방인 행동에 대해 공문으로 알려준데 대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본방인의 그 행동은 한마디로 후생(厚生)의 주의(主義)에 의해 귀국인이 얻은 권리에 기인(基因)한 것으로 즉 말하자면 귀 궁내부의 인가 및 운현궁의 정확한 권리에 기인하여 한 일인바 귀하의 항의는 지극히 궁내부와 외부 사이에 서로 다른 의견차이로 생긴 감이 있기에 이런 점에 대해 더욱 주의를 하시기 바라 회답하오니 이점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치 38년(1905) 4월 27일  
임시 대리공사 하기하라(萩原守一)  
외부대신 이 하 영 각하

이상과 같이 불법 수탈행동이 계속되면서 아래 3항과 같은 1905년 7월 29일 국내 온천장의 계약이 성립되면서 본격적인 국내 23개 주요 사업이 일본 축으로 넘어가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 상황을 주한 일본공사관기록에 있는 그 대로를 설명한다.

3. 日韓同志組合의 組織

1904년 8월 23일 제1차 「한일협약」이 체결되자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고문정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탁지부 고문에 메가다(目賀田種太郎)가 부임하였다.



종래 우리나라에는 탁지부에 속해 있는 총세무사로 영국인 Brown이 와 있었는데 그의 업적은 우리나라 탁지부 업무를 합리화시킨 큰 공이 있는 사람인데 일인들의 고문정치가 시작됨에 따라 그 간교에 쫓겨난 것이다.

이에 메가다 탁지부 고문은 Brown 대신 탁지부를 좌지우지 마음대로 움직여 급기야는 한국정부에서 질미진 일본의 차관이 과중하다는 것을 이유로 정부예산은 늘리는 한편 왕실경비를 취급하는 궁내부 예산은 대폭 삭감하여 황실의 현상유지조차 어려워졌다.

당시 궁내부 서리대신 친일파 이재극(李載克)과 궁내부 참서관 이세직(李世植)을 강압 설득하여 왕실경비의 조달방법으로 1905년 1월 29일 아래와 같은 23가지 소독원을 강탈하기 위해 「일한동지조합」을 칙명(勅命)이라는 명목으로 수탈계약을 맺게 된 것인데, 이재극은 그 뒤 한일합방의 원흉으로 일본으로부터 남작(男爵)을 받았다.

이렇게 된 뒤 일본공사 하야시는 1905년 4월 6일 일본 외무대신 고무라(小村壽太郎)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는데 그 보고 내용<sup>9)</sup>을 아래에 소개한다.

**【機密第五六號】**

日韓同志組合 特許契約 要項報告

本月一日當方發電第一二四号ヲ以テ報告有之候 日韓同志組合代表者タル 毛利部寅壽.

岩本善治トノ, 四人ト宮内府大臣李載克トノ間ニ利權讓與ニ關スル二十三件ノ 特許契約ナル, 別紙, 通り其要項ヲ拔草シ御參考洽ニ差出候 御査閲相成度候 此退申進候 敬具

明治三十八年 四月 六日

林 公使

9) 外務大臣 男爵 小村



<別紙>

- 一. 韓國度支部, 帳簿外ニ屬スル皇室用諸説, 一功, 引受ヲナスコト(百萬圓獻上)(其他收益百分, 六十ヲ獻上)
  - 二. 韓國沿江沿海, 埋立, 權利ヲ得ルコト(收益, 百分, 五十ヲ獻納)
  - 三. 韓國沿江ニ堤防ヲ作り田畝ヲ置ク權利ヲ得ルコト(五十萬圓獻ヒ其他收益百分, 二十)
  - 四. 韓國沿海沿江, 要地ニ勸業場ヲ設ケ運搬ノ權利ヲ得ルコト(十萬圓及收益ノ百分ノ二十獻上)
  - 五. 韓國, 水平ヲ田畝トナス權利ヲ得ルコト(十萬圓及收益百分ノ二十獻上)
  - 六. 韓國牧場再興ノ權利ヲ得ルコト(五萬圓收益ノ百分ノ二十)
  - 七. 鹽田増殖ノ權利ヲ得ルコト(十萬圓及收益ノ百分ノ二十)
  - 八. 煙草増殖ノ權利ヲ得ルコト(五萬圓及收益ノ百分ノ二十)
  - 九. 椎茸ノ製造販賣ノ權利ヲ得ルコト(五萬圓及收益ノ百分ノ二十)
  - 十. 養魚ノ權利ヲ得ルコト(五萬圓及收益ノ百分ノ二十)
  - 十一. 水流ヲ利用スル工事ノ權利ヲ得ルコト(五萬圓及收益ノ百分ノ二十)
  - 十二. 各都市港口ニ互斯會社設立ノ權利ヲ得ルコト(五萬圓及收益ノ百分ノ二十)
  - 十三. 韓國沿海ニ堤防ヲ作り田畝ヲ開ク權利ヲ得ルコト(五十萬圓獻上其他收益ノ百分ノ二十獻上)
  - 十四. 模範農場ヲ設ケ各穀種子肥料農具專賣ノ權利ヲ得ルコト(五萬圓ト收益ノ百分ノ三十獻上)
  - 十五. 煙草販賣ノ權利ヲ得ルコト(十萬圓ト收益ノ百分ノ四十獻上)
  - 十六. 濟州島有牧場ヲ擴張スル權利ヲ得ルコト(十萬圓ト收益ノ百分ノ三十ヲ獻上)
  - 十七. 鹽ノ官賣ノ權ヲ得ルコト(十萬圓ト收益ノ百分ノ三十獻上)
  - 十八. 濟州島ニ樟腦製造官賣ノ權利ヲ得ルコト(二十萬ト純益ノ百分ノ四十ヲ獻上)
  - 十九. 皇室所屬驛土屯土及宮内府所管各宮各司一般收稅土地原簿記載外ノ調査整理ノ權利ヲ得ルコト(五十萬圓ト純益ノ百分ノ六十獻上)
  - 二十. 砂糖官賣ノ權利ヲ得ルコト(五萬圓ト收益百分ノ三十)
- 二一. 溫泉冷泉條築ノ權利ヲ得ルコト(五萬圓ト收益百分ノ三十)



二二. 諸港灣船渠設置ノ權利ヲ得ルコト(五萬圓ト收益百分ノ三十)

二三. 石油官賣ノ權利ヲ得ルコト(五萬圓ト收益ノ百分ノ三十)

위 원문을 우리 글로 옮기면 아래와 같다.

**【기밀 제 56호】**

일한동지조합 특허계약요항보고의 건

이 달(4월) 1일 당방발(當方發) 저문제124호로써 보고한바 있습니다만 일한동지조합 대표자인 毛利部寅秀·岩本善治등의 4인과 궁내부대신 이재극과의 사이에 이권양여에 관한 23건의 특허계약서를 별지와 같이 그 요항을 발초(拔抄)하여 참고하시도록 제출하오니 친히 사열(査閱)하시기 바라 이에 보고합니다. 경구(敬具)

명치 38년(1905년) 4월 6일

林 公 使

外務大臣 男爵 小村 壽太郎

<別紙>

1. 한국탁지부의 장부(등기부)에 빠져 있는 황실용 제세(諸稅)의 일체의 인수를 할 것(백만원 현상) (기타수익 백분의 60을 현상)
2. 한국연강(沿江) 연해(沿海)의 매립(埋立)권을 얻는다(수익금 100분의 50을 헌납)
3. 한국연강에 제방을 쌓고 전답을 만들 권리를 얻을 것(50만원 현상 기타 수익금의 백분의 20)
4. 한국의 연해와 연강의 오지에 권업장을 설치 운반의 권리를 얻을 것(10



만원 및 수익의 100분의 20 현상)

5. 한국의 수평(水坪)을 전답으로 개척할 권리를 얻을 것(10만원 및 수익의 100분의 20현상)
6. 한국에 목장 재흥(再興)의 권리를 얻을 것(5만원 및 수익의 100분의 20)
7. 염전 증식(增殖)의 권리를 얻을 것(10만원 및 수익의 100분의 20)
8. 담배 증식의 권리를 얻을 것(5만원 및 수익의 100분의 20)
9. 추용(推茸)을 제조 판매의 권리를 얻을 것(5만원 및 수익의 100분의 20)
10. 양어의 권리를 얻을 것(5만원 및 수익 100분의 20)
11. 수류(水流)를 이용한 공사(工事)의 권리를 얻을 것(5만원 및 수익의 100분의 20)
12. 각 도시와 항구에 가스회사 설립의 권리를 얻을 것(5만원 및 수익의 100분의 20)
13. 한국연해에 제방을 쌓아 전답을 개간할 권리를 얻을 것 (50만원 현상 기타 수익의 100분의 20 현상)
14. 모범농장을 설립 각곡(各穀) 종자, 비료, 농구등 전매(專賣)의 권리를 얻을 것(5만원과 수익의 100분의 30 현상)
15. 담배 관매(官賣)의 권리를 얻을 것(10만원과 수익의 100분의 40 현상)
16. 제주도에 관유목장을 확창할 권리를 얻을 것(10만원과 수익의 100분의 30현상)
17. 소금의 관매(官賣)권을 얻을 것(10만원과 수익의 100분의 30현상)
18. 제주도에 장뇌(樟腦) 제조판매의 권리를 얻을 것(20만원과 순이익의 100분의 40현상)
19. 황실소속 역토(驛土) 둔토(屯土) 및 궁내부소관 각관(各官) 각사(各司) 일반 수세토지원부에 기재되지 않은 것을 조사와 정리의 권리를 얻을 것 (50만원과 순이익의 100분의 60현상)
20. 사탕(砂糖) 판매의 권리를 얻을 것(5만원과 수익의 100분의 30)
21. 온천·내천의 개발권을 얻을 것(5만원과 수익의 100분의 30)
22. 제항만과 선거(船渠) 설치의 권리를 얻을 것(10만원과 수익의 100분의 30)



### 23. 석유관매(官賣)의 권리를 얻을 것(5만원과 수익의 100분의 30)

이상과 같이 한국의 유망산업 거의 전반에 걸쳐서 매매나 다름없는 계약을 체결하여 표면으로 보기에는 한국에 유리한 것처럼 보이나 내용인즉 수탈에 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형식적인 수탈은 3년뒤인 1908년에 「동양척식주식회사」로 둔갑하여 일본사람의 소유로 귀착 착취를 당한 셈인데 위 수탈항목 중 뒤에 제시한 계약서 사본과 같이 온천·냉천의 개발이 바로 온양온천의 신정관이란 이름으로 뒤에 강탈당한 것이기에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그 예문을 소개한다.

## 契 約 書<sup>10)</sup>(例文)

大韓國內 一般溫泉冷泉修築<sup>10)</sup>을 皇室에 屬하고 該事業經理의 一切事宜를處辨하기 爲하야大韓國 皇帝陛下께서 植하샤日韓同志組合代表者 押川方義·松本武平·毛利部寅秀·岩本善治等과 互訂契約如左하고 宮內府盖卽以昭憑信事

第一條 日韓同志組合代表者에게 國內一般溫泉冷泉修築에 關한權을 許可하事

第二條 日韓同志組合代表者는第一條事業에 要하는資金을 自辯供給하事

第三條 大韓國 大皇帝陛下께서 官員十人以下를 波委하야 本事業을 監査하며 一切公簿를 每年終調査하事

波委하는 官員中에 外國人三人以下를 正爲聘用함도 得하事

第四條 日韓同志組合代表者가 時機를 計하야 勅令發布를 請하境遇에 大韓國 皇帝陛下께서 本契約을 明白公布하며 此事業을 修行하는데 各般便宜를 與하事

10) 「駐韓日本之使館記錄」, 「1905年 本省往機密」(明治三十八年四月六日字 機密第五六號)



- 第五條 日韓同志組合代表者가 此事業을 家行호는데 使用호 當事者를 專히 代表者가 禰定 任用호事
- 第六條 此事業每年總收入에서 第二條記載호 費用을 除호고 其純利益金百分의 參拾은 大韓皇室에 納호고 百分의 七拾은 日韓同志組合에 分配호事  
但 三個處竣工後第三年부터 納稅호事
- 第七條 日韓同志組合代表者는 光武九年七月三十一日爲限호고 金伍滿圓을 大韓國 皇帝陛下께 獻納호事
- 第八條 此契的期限은 貳拾伍個年으로 호事
- 第九條 此權을 前此他에 許可호미 無호고 後此 에도 他에 許可호을 不得호事
- 第十條 光武九年七月三十一日內에 第七條의 獻金을 不納호면 此契約이 無效호事
- 第十一條 同組合이 利益分配時에 朦朧隱漏호미 有호야 一經查出호면 此契納을 卽爲廢罷호事
- 第十二條 第七條의 獻金을 納호後 本事業에 看守호을 得호事
- 第十三條 未盡條件은 追後磨鍊호事

大韓光武九年七月二十九日

奉 勅

宮內府署理大臣 李載克 印

이상과 같이 소위 칙명에 의하여 계약은 하였으나 그 명칭인 「日韓同志組合」부터가 치욕적인 명칭이며 황실재산을 맡은 궁내부 서리 대신인 이재극은 친일인사로 그 후 을사보호조약에 적극 가담한 사람이니 궁내부 관할(宮內府 管轄) 황실재산을 황실경비 부족을 이유로 23개 사업을 이런 식으로 사실상 강압에 의해 강점당했다고 볼 수 있다.



#### 4. 雲峴宮(興宣大院官邸) 基他라는 詐稱의 理由

雲峴宮은 대원궁의 관저이다. 대문에 「운현궁기지」라고 하면 바로 이하응(李昞應)을 말한다. 온양행궁이 대원군의 소유라면 운현궁 「이하응」 명의로 온양군의 양안(量案=토지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터인데, 당시 온양군수 권중억(權重億)은 이를 확인할 수 없었고 다만 행궁(行宮)으로만 양안에 기재되었을 뿐이다. 즉 총면적 1,758척(尺)에 내정전(內正殿) 16칸·외정전(外正殿) 12칸·탕실(湯室) 12칸으로만 기재되어 있었다.

##### 가. 대원군 이하응의 행적

대원군 1820(순조20)~1898(광무 2)은 1863년 12월 고종이 12세에 즉위하자 섭정으로 10년동안 정권을 잡았다가 1866년 병인양요와 1871년 신미양요를 일으켜 쇄국정책을 써 국제관계가 악화되자 실정의 조목을 든 최익현(崔益鉉)의 탄핵을 받아 실권되고 고종의 친정(親政)을 선포하고 그의 정치간섭을 금지하자 운현궁을 떠나 양주 직곡(直谷)에 은퇴했다.

이때부터 민비(閔妃)와의 정치적 숙원(宿怨)이 깊어져 재집권을 노리던 중 1882년(고종 19) 임오군란으로 재집권을 되찾았다. 그 후 민비의 책동으로 청나라에 4년간 유배되었다가 1885년(고종 22)귀국 재기의 기회를 놓이던 중 1887년(고종 24) 원세개(袁世凱)와 협력 고종의 폐위와 함께 장남 재황(載晃)을 옹립하려다 실패하고 1895년(고종 32) 일본공사 미우라(三浦梧樓)를 끌어드려 민비를 시해하고 재집권했으나, 일본의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아 바로 실권하고 은퇴했다.

이어 1898년(광무2) 죽었으나 고종 폐위운동과 민비시해사건 등으로 그가 죽었는데도 고종은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지 않았다.

민비를 살해한 미우라일본공사를 끌어들이기 전에도 고종을 폐위<sup>11)</sup>하고 그의 손자 이준용(李垞鎔)을 왕위에 오르게 하기 위해 음모를 획책했다가 사

11) 「駐韓日本之使館記錄」, 「1895年 李垞鎔關係書類 R1」



전에 발각되어 이준용은 유학을 이유로 일본을 거쳐 영국에 있었다가 10년 만에 귀국한 일도 있었으며, 대원군은 죽기전까지는 이준용을 등극시키기 위하여 친일노선으로 일본에 적극 협력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일본인들은 친일적인 대원군과 이준용을 핑계삼아 온양행궁을 온현궁기지라고 사칭(詐稱)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 5. 日帝의 侵奪行爲의 例

### 1) 韓國의 農商工品の 수탈

일본은 명치유신으로 근대화 정책에 성공하여 국제간의 교역으로 경제가 갑자기 발전하여 개화기를 전후해 한국의 농·상·공업의 미개한 틈을 타서 대륙침략의 교두보를 삼고자 한국을 쉽게 이용하게 된 것이었다.

즉 그 당시 한국의 도량형기는 국가관리정책이 부족하여 각 지방마다 도량형기의 통일이 표준화되지 않았다. 즉 관제화(官製化)가 혼란에 빠진 셈이다.

이러한 틈을 이용한 일제는 쌀의 생산량이 풍부하고 질이 좋은 호남지방의 쌀과 농산물을 마구 사들였다. 군산항·목포항·여수항을 통하여 수입하였으니 그 량(量)이 본국에서의 량보다 3분의 1이나 많았다.

공업에서 있어서도 한국의 기업은 후진으로 공산품의 저질과 기업경영의 후진등으로 억제되어 일제의 자본축적과 기술의 발달로 품질의 이용가치와 편리함에서 한국공업은 저지당했고, 따라서 한국공업은 일제의 공업원료를 공급받아야 하는 존재에 불과하였고 광업면에서도 질 좋은 석탄과 금·은·동 등 광공업 생산량의 공급원이 되었고 특히 직산의 사금과 온양 설화산의 금은 그 질이 좋아 같은 맥락으로 일본으로 가져갔다.

금융기관은 걸핏하면 일본의 은행에서 자본을 도입해서 비싼 이자로 금융정책을 약용하였고, 상업에 있어서도 정치, 경제적 조건이 유리하였던 일본



상인은 원료의 수집과정과 제품의 판매과정에서 막대한 폭리를 취하는 반면 다수의 한국상인은 영세성을 면하기 어려웠다.

## 2) 한국의 鐵道權 掌握<sup>12)</sup>과 溫泉開發

일제의 한국철도권장악의 효시는 우선 「경인선<sup>13)</sup>」 부설권이다. 1896년(고종 33)에 미국인 「모리스」(James R.Morse)가 우리정부로부터 부설권을 얻었는데 일제는 다시 이 부설권을 교묘히 양도받아 1899년(광무) 3월에 경인철도 합작회사를 만들고 공사에 착수하여 그해 9월에 인천과 노량진간의 개통을 보게 된 것이 한국철도의 시작이다.

그후 경부선이 1901년(광무 5)에 착공하여 1904년(광무 8)에 개통되었는데, 러일전쟁을 미리 대비하느라 1903년(광무 7) 말경 이미 군용철도는 완성된 것이었다.

경의선은 러일전쟁이 발발되자 속성으로 1905년 4월에 완공되어 그때부터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군인과 군수품을 실어 날랐다.

그리고 호남선은 1914년(일제하 대정3) 1월 11일에 개통되었고 경원선은 1914년 8월 6일에 개통되었으며 서울역은 1925년(일제하 대정14) 10월 15일에 완공하였다.

### ▣ 경남선(장항선)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한반도에서 기승이 당당해졌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1905년(광무 9) 11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 이듬해 1906년 2월 우리나라에 일본의 실제적 통치기구인 통감부가 설치되어 고문정치에 이어 차관(次官)정치가 시작되어 일제의 지배는 더욱 속도를 가해왔다.

러일전쟁<sup>14)</sup>을 뒷받침하고자 이땅에 건너온 일본의 광산재벌 「테구찌 야사

12) 「朝鮮鐵道一般」 朝鮮鐵道協會 1935年 發行.

13) 「朝鮮鐵道現況」 朝鮮總督府鐵局 1944년.

14) 「實錄 忠南半世紀」 邊平燮 지음, 創學社 발행, 1983年 5月 30日, pp.67-77.



부로」는 설화산 금광의 사장이 되어 큰 이득을 보았고, 장차 천안에서 장항까지 경남철도 부설을 꿈꾸고 있었다.

결국 「대구찌」는 1919년 9월 30일 면허를 얻어 사장이 되어 경남철도 공사에 착수 1922년(일제하 대정 11) 6월 1일 천안에서 우선 광천(廣川)까지만 개통시켰다.(장항까지는 1931년(일제하 소하 6) 완공했다) 이어 경남철도가 광천까지만 개통되자 「대구찌」는 온양온천에 관광사업을 목표로 욕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그 때 경성(서울) 재벌들이 운영하고 있던 「溫陽溫泉株式會社」을 하여 사들이기로 하였으나, 반발이 심하자 할 수 없이 그 때 러일전쟁에 참가하여 온양온천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보령 사단장을 만나 온천강점계획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었고, 그의 요청으로 사단장의 위협에 못이겨 「온양온천주식회사」는 한평당 단 10전도 안되는 돈으로 1926년(일제하 대정 15) 「대구찌 야사부로」에게 팔게 된 것이다.

### 3) 韓國 固有의 風致를 무시한 日帝의 新井館 開發

1926년 (일제하 대정 15) 경남철도회사에 넘어가 「대구찌 야사부로」는 온천개발에 조예가 있는 일본인들 중 본국에서도 이름있는 지질학자까지 초청하여 「대구찌」는 신정관(온양관광호텔) 지역과 탕정관(전 국제호텔)의 터가 적지로 판명 그 후 「아카모토」는 탕정관을 개발하였다.

神井館이라는 이름은 「神井」은 세조대왕이 지은 이름에 館자를 붙여서 神井館이라 했고, 「아카모토」는 탕정관을 개발하여 세웠는데 그 후 「국제 호텔」이라 이름했다가 지금은 폐관(廢館)이 되었다.

당시 온양읍 온천리에서 「신천개발주식회사<sup>15)</sup>」를 경영하고 있던 「이관형」씨는 “내가 들은 것으로는 이것이 이 지방의 첫 호텔업체입니다. 탕시설도 갖추고 술도 마실 수 있으며 일본식 다다미방도 10여개 됐습니다. 해방 후 신정관은 국유화 되어 「온양관광 Hotel」로 바뀌어 건물과 시설을 현대화 시켰으며, 이 무렵 온천에는 여관도 10여개나 생겼는데 지금처럼 온천물을 여관에 공급해 주지 않았습시다. 그러다가 당시 촌후작으로 통하던 귀족이 별장

15) 「實錄 忠南半世紀」 邊平燮 지음, 創學社 발행, 1983年 5月 30日, pp.71.



으로 쓰던 현재의 「온양장여관」에만 온천수를 공급했죠. 그만큼朴후작의 세력이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 온양의 여관들이 불평할 수밖에요. 그러나 그들 「아끼모도」와 「테구지」는 일인의 여관이든 한국인의 여관이든 물공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한국인으로 온천여관을 경영하고 있던 張浩善이라는 사람이 정면으로 일인들의 횡포를 반발하고 나섰죠 재력도 있던 張씨는 독자적으로 온천을 개발하겠다고 직접 간접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張씨는 뱃심종게 개발작업에 착수했어요. 이렇게 되자 일인들은 할 수없이 張씨에게만 온천여관에 물을 공급할테니 온천개발을 중지해 줄 것을 간청했고 張씨도 이에 동의해서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천여관이 성업을 이룬 것은 당연했죠. 정말 온양온천의 역사는 온천수를 둘러싼 투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인터뷰 내용을 소개했다.

신정관은 원래가 고색창연한 풍치좋은 행궁(行宮)이었다.

영조대왕 재임시(1724~1776)에는 온천 주위가 1,758척이었고 內正殿 16間, 外正殿 12間, 湯室 12間이 있었고 「駐蹕神井記」·「靈魂臺」·「惠波亭」에다 王이 溫行에 거동할 때는 관리인인 「監官」 1인에 湯直 30명에다 首湯直 1명, 大關直 1명, 靈魂臺直 1명, 그밖에 輪回, 立番, 守衛가 行宮에 있던 것으로 기록이 있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온천에는 수많은 중앙의 인물들과 지방에서 동원된 관리들이 많았고 울창한 수림과 고색창연한 궁궐(行宮의 임시궁궐)이 있었던 곳에 일제시대는 그 모두가 없어지고 불과 3~4가지 기념물만이 남아 있다는 것이 일제의 수탈과정에서와 개발과정에 없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아쉬운 점은 행궁이 없어진 점이 후세들의 역사교육 현장으로 보존되었으면 하는 점이다.

그 후 神井館은 크게 확장 개축하여 총 투자액 80여만원이 되었나니 그 때의 경제 사정으로 보아 어마어마한 투자라 할 수 있다. 총면적 6,100여평에 객실 70여실과 양풍(洋風)으로 많은 시설을 하였는데, 호텔과 溫泉館은 Veranda식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고, 온천관(湯)은 남탕과 여탕으로, 내부



에는 식당(한식, 양식, 일식), 매점, 이발소, 휴게실, 오락실(당구장, 바둑, 장기, 마작), 독탕 등의 시설을 했고, 외곽에는 光風閣, 彩霞寮, 香雲莊, 惠波亭(한식)의 별장을 지었다. 이들 각동(各棟)은 의관과 내부에 다함께 일식(日式)과 서양식을 가미해서 건축했다.

신정관에는 대형 식당을 마련하여 연회장으로는 다다미 60조가 1실 30조가 1실로 되어 있어 식사를 즐길 뿐만 아니라 연예실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온천수의 성분은 특히 온천장이 많은 일본 본토에서도 드물게 단순 Alkali性 온천수로 무색 투명하고 감미가 있다.

그 성분을 「조선총독부 중앙시험소」에서 분석한 결과물은 순 Alkali性에.

1. 硅酸 natrium 0.074
2. 硫酸 kalium 0.0067
3. Chlor natrium 0.0276
4. 重炭酸 kalium 0.039
5. 重炭酸 natrium 0.1584

기타 미량의 철, aluminium, ion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고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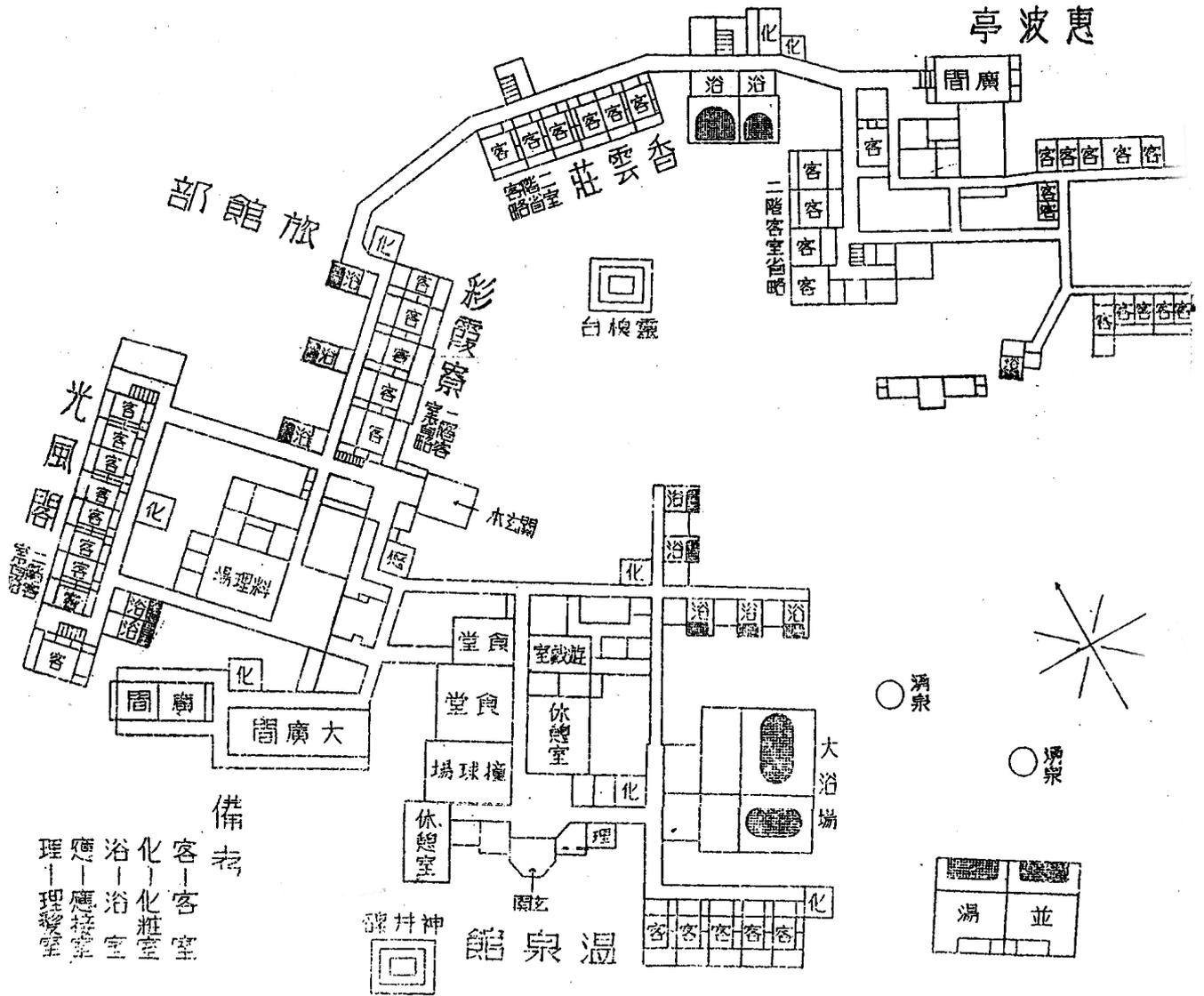
온천수의 약물 효과로는

- 가. 만성류마치스 관절염
- 나. 신경통
- 다. 만성 생식기질환
- 라. 골절 및 외상
- 마. 출상의 태후증
- 바. 빈혈, 피순환, 혈관 경화
- 사. 신경질환
- 아. 피부 질환

그리고 이 온천수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희게 하는데 특히 효과적이다. 1937년(일제하 소화 12년) 당시의 神井館 규모의 평면도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圖面平館井神 16)】 (1937년 4월)



16) 「溫陽溫泉神井館案内」, 京南鐵道株式會社 編, 1937年 4月, pp4-18.



### Ⅲ. 韓日合邦을 前後하여 溫陽溫泉을 이용한 소위 名士들

#### 1. 日人들의 溫陽溫泉 이용

1905년 9월 러일전쟁이 일본의 승리로 끝나자 호시탐탐 한국침략을 노리던 일본은 재빨리 일본 총리대신 이또오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특사로 1905년 11월 9일 한국에 파견 동 18일 고종을 위협하고 을사오적(五賊) 박제순, 이지용, 이완용, 이근택, 권중현의 동의하에 을사조약을 체결 조인했다. 이어 동년 12월 20일 통감부(統監府)와 지방 이사청(地方理事廳) 관제(官制)를 공포하고 동년 12월 21일 초대 통감으로 「이또오 히로부미」를 임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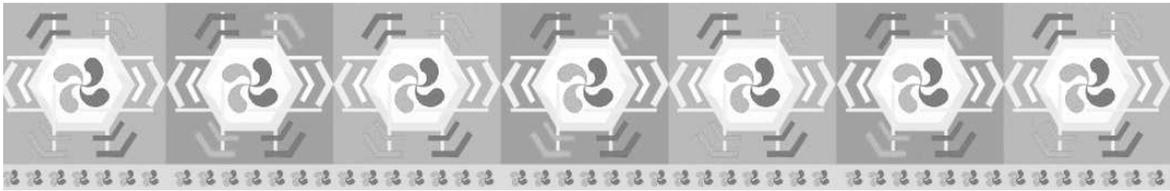
1906년 2월 1일 주한 일본군사령관 「하세가마」가 통감부 개청식을 거행하고 동년 2월 2일 「이또오」는 초대 통감에 착임했다.

통감이 된 「이또오」는 통감이 된 바로 그 이듬해인 1907년 1월 온천을 좋아하는 일본사람들의 특질답게 온양온천에 휴양차 왔다. 이 때 동행한 사람은 한국 주차군 참모장(헌병대장 출신) 「이시아끼 겐지로오」(明石之二郎)를 비롯하여 「이또오」를 그림자같이 따라다니는 「후루다니」(古谷久綱)와 경성 이사청 이사관 「미우라」(三浦彌五郎), 통감부 외무부장 「이시스가」(石塚英藏)등 수행원과 경비병 수십명이 경비했다.

이렇게 해서 5일간이나 온양온천에 머물다 감으로써 온양은 일본사람들의 전국 최고의 휴양지로 일약 각광을 받게 되어 같은 해 통감부 총무장관 쓰루하라(鶴原定吉), 철도관리국장 후루이찌(古市公成), 와무총장 나베지마(鍋島桂次郎)등 통감부 고위 간부들이 빠짐없이 온양을 방문하여 온양군수는 손님 대접하랴 경비 문제등 한가한 날이 없었다는 기록이다.

그리고 또 같은해 1월 24일은 당시 황태자이던 순종과 당시 두 번째 왕후인 윤택영(尹澤榮)의 딸 순정효왕후(純貞孝王后) 尹씨의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그 길로 통감부 간부들을 데리고 온양으로 내려와 마치 통감부를 온양으로 옮긴것처럼 북적거렸다.

다시 1907년 7월에도 伊藤은 온양에 내려와 고종을 강제로 양위키는 황제 양위식을 中和殿에서 거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이또오 통감은 온양을 3번이나 다녀갔다.

그 후 이또오통감은 1909년 6월 15일에 당시 부통감이던 「소네 아라스게」(曾補荒助)에게 물려주고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을 방문하여 러시아와 만주문제를 해결하려다 안중근 의사에게 저격을 당하여 일생을 마감했다.

이또오 히로부미가 죽은 후 후임통감인 소네(曾禰荒助)도 병으로 죽고, 그 후임에 데리우찌 마사다께(寺內正毅)가 통감을 맡았고 데리우찌는 이또오의 죽음으로 더욱 충격을 받아 한일합방을 서두르게 되어 그 이듬해인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된 것이다.

## 2. 李完用의 溫泉휴양

매국노 李完用이 1909년 12월 명동 천주교 성당에서 벨기에 황제 레오폴드 2세의 추도식을 마치고 나오는 것을 이재명(李在明)의사의 칼에 찔려 복부와 어깨에 중상을 입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온양온천에 내려와 그해 겨울부터 이듬해 여름까지 거의 반년이나 요양차 체류했다. 그 때 이재명은 이완용을 덮쳐 칼로 마구 찔렀는데 겨울이어서 옷을 두텁게 입어 중상만 입혔을 뿐 죽지는 않았다.

이완용은 상처도 고칠겸 괴로운 심정도 가라앉힐 겸 잠시나마 이곳 별장에서 소용돌이의 정국을 잊으려한 것이다. 그가 목고 있는 별장은 그가 총리대신이고 따라서 그의 생명을 노리는 애국열사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철저한 경비가 취해졌다.

신경이 날카로워진 李完用은 잠자리에 들 무렵 천정에서 괴상한 소리가 들려 눈을 떴다. 그러나 이내 조용해졌기 때문에 다시 자리에 누워 잠을 청했다. 그리고 몇시간이 지났을까 다시 그 괴상한 소리가 들려 그는 머리앞에 감추어 두었던 권총을 빼들고 천장을 겨누었다. 틀림없이 자기를 노리는 괴한이 침입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다.

17) 「實錄忠南半世紀」 邊平燮 지음, 創學社 발행, 1983년 5월 30일, pp.69.



李在明으로부터 공포의 칼부림을 당하고 난 이후 온 민족의 분노를 한몸에 지니고 사는 그에게 잠시나마 불안이 떠나지 않았던 터라 그는 그렇게 성급한 추리를 했던 것이다.

“겹겹이 보초를 서고 있는 놈들은 무얼했기에 내방에까지 괴한이 들어오게 됐는가?”

이완용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슴을 두근거리며 계속 천장을 응시했다.

그때 천장에서 사람이 뛰어내리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순간 李完用은 쥐고 있던 권총의 방아쇠를 당겨 연거푸 총알을 발사했다. 탕 탕! 별안간 밤의 적막을 찢고 울리는 총성을 옆방엿 자고 있던 호위대장이 달려왔으며 기타 시종자들이 허겁지겁 李完用의 방으로 몰려들었다.

“총리대신 각하께서 번고를 당했다. 빨리 의사를 불러라!” 하는 고함소리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한 호위대장이 칼을 빼어 李完用이 쓴 권총 앞에 벌집처럼 되어버린 천장을 마구 찢었다.

그러나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찢어진 구멍사이로 쥐똥만이 쏟아져 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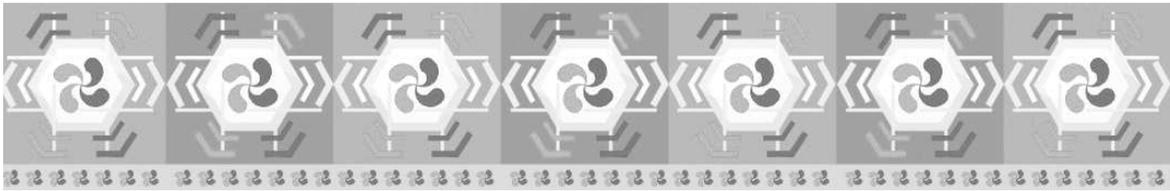
“각하! 죄송합니다만 쥐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안심하시고 침전에 드십시오.”

하고 호위대장이 최종점검을 끝낸 후 보고를 하자 李完用은 가느다란 눈에 겸연쩍은 미소를 띠며 권총을 거두었다. 그러면서 그는

“제군들, 공연히 소란을 피워 미안하오. 어서들 제자리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오늘밤 있었던 일은 없었던 걸로 하시오. 외부에 쓸데없는 말을 퍼뜨리지 마란 말이오.”

하고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의 방에는 언제나 고양이를 갖다놓도록 했다.

원래 고양이를 좋아한 李完用은 이때부터 온양에 있는 동안 잠시도 고양이를 떼어놓지 않았으며 고독한 그에게 유일한 친구로 마음을 주었다. 시종자



들은 아옹거리는 고양이의 음성을 싫어했지만 李完用은 언제나 고양이에게 잘 다해 주라고 일렀으며 이듬해 7월 서울로 올라 갈 때도 고양이를 데리고 갔다. 그런데 이날 밤의 소동은 아무리 비밀에 부쳐보려고 했지만 소문은 꼬리를 물고 퍼져나가 서울에까지 알려졌다. 그래서 月南 李商在 선생같은 분은 이완용에게 편지를 보내

“취 때문에 크게 놀랐다니 심히 안됐오이다.”

하고 조롱하기도 했고 고양이를 몇 마리 보내겠다고 제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만큼 李完用의 취 소동은 그를 미워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됐던 것이다.

李完用이 온양에 있는 동안 가장 긴장된 시간을 보낸 것은 1910년 6월 일본 총독부에서 대한 제국의 경찰권을 빼앗기 위한 압력을 넣을 때였다.

그 때 일본은 합방에 앞서 한국의 경찰권을 빼앗으려 했고 한국측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자 그들은 온양에서 요양중인 李完用 총리대신에게 사람을 보내어 압력을 넣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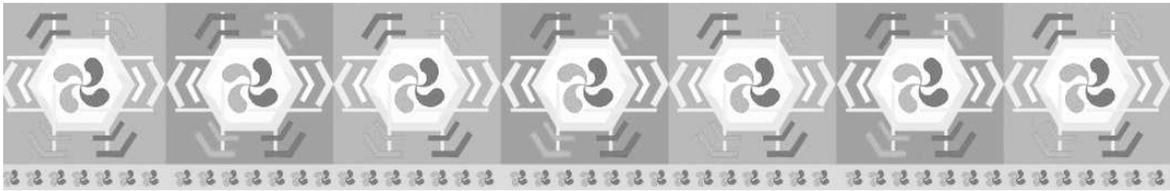
즉 6월 23일 통감부의 총무장관 사무취급이던 이시쓰가가 그의 비서관 오꾸라를 온양의 李完用에게 보내 경찰권 위임에 대한 설득을 폈던 것이다.

山邊健太郎이 쓴 일한병합소나 明石元二郎(한국 주둔 일본군 사령관 겸 경시총감을 지낸 사람)의 전기에 의하면 이때 李完用도 온양까지 찾아온 오꾸라 비서관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한국의 경찰권을 위임하라는 요구를 거절했다.

한국 현대사 3권(민족의 저항, 신구 문화사 71년판)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한편 이시쓰끼는 온양에 휴양중인 李完用에게 사람을 보내어 경찰이양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다. 李完用은 처음에는 그 요구를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집요한 일본측의 요구에 못 이겨 마침내 경찰권 위임에 동의하고 말았다.

이완용의 동의는 정부대신들에게 큰 영향을 주어드디어 각의는 일본의 요



구를 받아들이길 하여 6월 24일 오후 8시 다음과 같이 한국 경찰권 위탁 각서를 조인함으로써 한국은 완전히 경찰권을 잃게 되었다... (이하생략)”

이것으로도 그 무렵의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6월 23일 오후라 비서관이 이완용을 찾아왔을 때 이완용은 일부러 옥탕에서 오랜 시간을 끌다가 겨우 하는 말이

“나는 지금 공무를 떠나 휴양중인 살미이요 朴濟純 총리대신 서리가 나를 대신해서 각의를 주재하고 있으니 그와 상의를 해보시오”

하는 것이었다.

오후라 비서관이

“하지만 각하! 각의는 度支部 대신 高永喜學部대신 이용직 등이 경찰관을 위임한다면 한국의 행정을 사실상 포기하는 행위라 하여 반대하는 바람에 결정을 못보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완용은

“아, 그렇소? 하지만 나도 그들의 대신들 생각이 옳다고 보오. 굳이 한국의 경찰권까지 통감부에서 갖겠다는 생각이 뭐요?”

하고 반문했다. 그래서 오후라 비서관은 李完用의 방을 물러나와 이시쓰까에게 전보를 쳐 면담결과를 보고했다. 그러자 이시쓰까는 직접 李完용에게 다음과 같은 전보를 보냈다.

“한국 경찰권 위임에 대한 사항은 새로 부임하게 될 데라우찌통감의 지시에 의한 것임. 본관은 각하가 금일 중에 경찰권 위임에 대한 각서조인의 뜻을 각하의 대신들에게 주지시켜 주기를 희망함. 본관은 각하께서 협력을 함으로써 제국이 바라는 경찰권 위임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는 보고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확신함.”

그리고 오후라 비서관에게도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李完용의 동의서를 받아오도록 지시했다.

李完용은 이시쓰까가 보낸 전문을 받아 들고 곰곰이 생각했다. 이 전문은 완전히 억압적이고 위협적인 것이었다.



테라우찌통감의 지시사항 이라든지 제국이 바라는 것이라든지 하는 것이 만약의 문제에 대해 협력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일본이 시키는 대로 무엇이든 충성을 다해온 **李완용**의 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고 내각을 해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라고 **李완용**은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온양을 떠나지 않고 버티며 기다리고 있는 오푸라 비서관을 불러

“기왕 이렇게 된 것. 내가 어쩔 수 있겠오?”

하고는 동의서에 서명을 했다.

**이완용** 총리대신이 한국 경찰권을 일본 통감부에 위탁하는데 동의함으로써 이튿날 긴급 소집된 각의는 더 이상 반대를 못하고 위탁각서에 조인할 것을 결정, 한국의 경찰권을 빼앗기고 말았다.

이렇게 하여 6월 24일 오후 8시 한국 경찰권 위탁조인이 이루어져 곳곳에서 **이완용**을 규탄하는 의분의 소리가 높아지고 세상이 다시 소란해지자 **李완용**은 온양을 떠나 서울로 올라왔다.

모두들 **이완용**이 온양에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무슨 변을 당할지 두려웠던 것이다. **李완용**이 온양을 떠나 서울로 간 후 불과 2개월도 못돼 그는 다시 저 엄청난 민족의 굴욕, 한일합방서에 조인을 했다.

어느 시대고 그 질과 방법이 다를망정 뇌물이라는 것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중앙의 고위층에게 뇌물을 받치는 기회는 그 고위층이 지방에 나왔을 때가 좋은 기회로 이용된다.

따라서 충청남의 온양이나 유성은 일제의 가장 좋은 뇌물전달 장소로 이용되었다. 제6대 조선총독으로 우라끼라는 자가 1931년 6월부임, 이듬해 7월부터 농촌시찰을 한다고 전국을 순회했다.

우라끼총독은 때마침 일본의 만주침략이 한창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한반도를 그들의 병참기지로 삼기 위해 조직적인 농촌진흥운동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을 순회한 것이다. 실상 우라끼 총독이 내세운 농촌운동이란 지하자원의 개발, 쌀증산, 솜생산 등 그들의 병참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이었다.



「남쪽땅에는 목화를, 북쪽땅에는 양을!」, 「南綿北羊」 하는 따위의 표어가 다 그런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우가끼총독이 이와 같은 총독부 시책을 강조하면서 지방순시중 1932년 7월 온양 神井館에서 1박하게 되었다.

이 기회를 이용. 마침 천안에 와 있던 이와사끼라는 일본인이 우가끼총독의 면회를 요청했다. 그는 성환에다 금광을 차리려고 했으나 산주가 이에 응하지 않는데다 자금이 없어 전전긍긍하고 있는 판이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그는 총독을 찾아 온 것이다. 그러나 건달패 비슷한 이와사끼에게 면회가 허락될 리 없었다. 아무리 비서들을 붙잡아 사정해 보았지만 허사였다. 그래서 이와사끼는 총독이 아침일찍 일어나면 정원을 산책한다는 것을 알고 새벽부터 신정관 뜰에 잠복, 총독을 기다렸다.

이윽고 먼동이 트면 정원나무에 새들이 날아와 지저귀기 시작하자 우가끼총독이 일본식 잠옷 바람으로 수행원도 없이 정원으로 나왔다. 이와사끼는 이때다! 하고는 숲속에서 뛰쳐나와 우가끼 총독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갑작스런 사태에 우가끼 총독은 처음에는 놀랐으나 사내가 무릎을 꿇자 안심한 듯, 「무언가?」 하고 조용히 물었다.

이와사끼는 아무말도 없이 들고 있던 보따리를 끌러 총독 앞에 내 놓았다. 그것은 1m가 훨씬 넘는 호랑이 가죽이 아닌가.

원래 호랑이를 좋아하는 일본인들이지만 우가끼총독은 특별히 이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니 이것! 하고는 입을 크게 벌린채 좋아서 어쩔줄을 몰랐다.

총독이 크게 만족하는 것을 본 이와사끼는 비로소

“제가 금광을 하려고 함경도에 갔을 때 구한 것입니다. 제 뜻이나 받아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했다.

총독은 “오! 이것 틀림없이 백두산 호랑이야! 받고 말고...”하고는 이와사끼가 준 호피를 들고 이와사끼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이와사끼는 총독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그에게 부닥친 애로 사항을 털어냈다. 그러자 총독은 즉석에서 관계자들을 불러 이와사끼가 하려고 하는 성환



금광개발을 적극 도와주도록 지시하고 그 자신이 제정한 탄광장려금 교부규칙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의 자금지원을 해 주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하여 이와사끼는 총독의 도움으로 1933년 6월 성환 광업 주식회사의 설립을 보게 됐으며 해방전까지 크게 융성했다.

그런데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에 살고 있으며 일제 때 아산군 장업서기를 지낸 李浩周씨는

“그 때 이와사끼가 준 호랑이 가죽은 바로 우가끼총독이 묵었던 신정관 주인의 것인데 이것을 몰래 훔쳐다 바쳤다고 들었다.”고 말하고 있어 더욱 흥미를 돋운다.

어쨌든 그 후에도 누구는 우가끼총독에게 호랑이 가죽을 뇌물로 주고 판사가 되었느니 하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았고 그 때마다 온양이나 유성이 전달 장소로 곧 잘 이용되었다.

